



# 그날 넘어 지금 여기를 살리는 4월을 위해

예술공간 오이 4·3 연극 네 번째 '고사리 육개장' 육지 사람과 제주인 만남 미래 향한 4·3 의미 짚어 서귀포 공간에서 첫 공연



예술공간 오이의 새로운 4·3 연극인 '고사리 육개장' 출연 배우들과 함께한 공연 이미지.

2018년 '4통 3반 복층 사건'이 시작이었다. 극단 예술공간 오이는 과거의 제주4·3을 넘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무엇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3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왔다. 그 방식은 4·3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에두르되 찬찬히 4·3을 짚는 세대 앞에 부러놓는 거였다. 2019년 재공연된 '4통 3반 복층 사건'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했고, 2020년 초연한 '프로젝트 이어도'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전개됐다.

예술공간 오이가 이번에는 또 다른 4·3연극 '고사리 육개장' (작, 연출 전혁준)을 관객 앞에 내놓는다. '제주4·3 기억과 공간 연극 프로젝트' 네 번째로 진행되는 이 작품 역시 70여 년 전 어느 시절로 향하는 대신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이들의 나날 속에서 4·3을 말하려 한다. '고사리 육개장'은 이 세상과 작

별을 고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주 여행길에 오른 '육지' 사람 단우,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4·3 전시회를 꾸리는 정현의 만남을 통해 4·3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펼쳐진다. 트라우마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진 두 인물의 개인적 서사에 4·3이 어떻게 스밀지 관심을 모은다. 채려나, 이진혁, 이상철씨가 출연

한다. 전혁준 연출가는 "이 작품은 4·3 당시를 재연하거나 전체를 다루진 않지만 부분을 필요에 따라 재단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닌 부분 그대로가 전체와 닮았다는 관점의 이야기"라고 했다.

예술공간 오이는 이 공연에 대해 "아프고 슬픈 기억도 공감해가는 그 시간과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며 "4·3 주제 공연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현대를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예술공간 오이 인 서귀포' (서귀포시 중정로 76, 지하1층)에서 처음 선보이는 공연으로 10월 2~24일 토·일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만날 수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성인) 1만3000원 (예매 1만2000원). 예약 전화나 문자는 010-2689-3152.

전선희기자



부윤자 서예가가 쓴 신광수의 '탐라록'.

## 옛 제주 읍은 시문 먹글씨에 담다

중견 서예가 부윤자 개인전 이견·신광수·임제·광해군 오래된 글귀가 전하는 가치

이방인의 시선으로 제주 섬의 풍토를 읊은 옛 시와 산문이 먹글씨로 살아났다. 지난 25일 시작된 제주 중견 서예가 부윤자의 개인전에서 그 구절들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개인전의 흐름을 이어 '고전 속에 노닐다 II'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서 부 작가는 '절해고도' 제주에 다다랐던 조선시대의 관리들과 유배인들이 이 땅에 머물며 느낀 감흥을 적은 글귀들을 뽑아 붓으로 써 내려갔다. 그들의 발자취, 식견과 문화 등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새기고 다시금 제주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부 작가가 택한 글은 유배생활을 했던 규창 이견이 17세기 초 제주를

기록한 '제주풍토기', 의금부도사로 좌인을 암송해 제주에 왔다가 풍랑으로 40여 일을 체류하며 당시 사회상과 잡내 등 백성들의 괴로운 일상을 그렸던 조선 영조 때 시인 석부 신광수의 '탐라록', 조선 중기 시인 임제의 제주도 기행문인 '남명소승', 유배인이었던 광해군의 칠언율시 '제주적중(濟州謫中)' 등이다. 부 작가는 "조선시대 제주 유배인과 목민관이 남긴 글들 통해 제주도민의 생활상은 물론 시대성과 역사성이 고이 간직된 제주 유배문화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찬호 미술평론가는 "소암 현종화, 여초 김응현의 영향을 받았고 전·예·조·해·행의 오체를 두루 섭렵한 부윤자 서예가를 "서법에 충실한 작가"로 평했다. 김 평론가는 "그래서 그의 글씨는 전통의 서법이 드러나 고풍하면서도 질박한 서풍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달 30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 전선희기자

## 음악극으로 만나는 설문대와 돌하르방

제주빌레앙상블 창작품 '스페이스 크루즈' 공연 도문진원 기획 공연 선정



제주빌레앙상블의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

제주섬에 전해오는 유·무형의 자원들에 상상력을 입힌 무대가 있다. 제주빌레앙상블의 '스페이스 크루즈' (예술감독 김남훈, 연출 정진웅)다. 이 작품은 설문대할망 설화와 이 섬을 지키는 돌문과 유산인 돌하르방 이야기를 엮어 만든 이미지 음

악극이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실시한 2021년 기획공연 프로그램 선정작 중 하나로 10월 17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려진다.

극 중 설문대는 육황상제의 딸로 땅에 내려와 하르방과 사랑에 빠지지만 둘은 이별을 맞으며 하늘과 땅에서 서로를 그리워한다. 하르방은 돌하르방이 되어 제주 사람들의 곁에 머물고, 설문대는 천상에 올라 여신으로 환생해 이 땅을 굽어본다. 제주빌레앙상블은 이를 엮갈린 운

명, 오랜 기다림, 빛의 환생, 황룡의 부활, 불시착, 사랑을 품다, 우주의 축제 등 11개의 장면으로 구성해 달빛과 별빛 아래 음악과 춤이 있는 무대를 펼쳐놓는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타악, 기타, 대금 등 동서양의 선율을 넘나들며 한국무용, 내레이션이 더해진다.

2009년 창단된 젊은 창작 음악단체인 제주빌레앙상블은 클래식, 실용음악, 국악 등 분야별 전공자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 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 작품 개발과 연주로 세대를 아우르며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이어왔다. 정규 앨범 제작, 문화예술교육 사업도 벌이고 있다.

관람료 무료. 입장권 예약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공연예매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710-7643.

전선희기자

## 시대 앞선 여인 강평국의 삶 무대에

내달 9일 '불꽃여인 강평국' 제주 소재 창작극 개발 작품 연극협회도지회 제작 맡아

재학 당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시위 행진을 벌인 인물이다. 1921년 고향 제주에서 친구 최정숙과 함께 여성의 문맹퇴치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여수원(女修園)을 설립했고, 1924년엔 조천리에서 최정숙·고수선 등과 여성의 수양기관인 '부인회'를 조직했다. 일본 동경여자대학 전문학교에 입학했던 그는 1927년에는 '조선총독독립정치 폭로연설

회'에서 동경여자청년동맹 대표로 연설했다.

제주 연극인들이 제주 여인 강평국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을 그린 작품을 준비했다. 제주시가 지원하는 2021년 제주소재창작연극개발사업으로 제작한 '불꽃여인 강평국' (작정민자·강은미, 각색 강종임, 연출 고동원)이다.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 주관으로 10월 9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이 작품은 그 제목처럼 독립운동과 여성운동, 문맹

퇴치운동에 온몸을 던졌던 항일 애국지사 강평국을 조명한다. 전반부에는 3·1운동을 시작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펼친 모습을 담고, 후반부엔 "진정한 독립은 여성들이 깨어나야 한다"며 시대를 앞섰던 강평국 지사의 신념을 그려낼 예정이다. 박은주(강평국 역), 고지선(최정숙) 차선영(고수선, 최마리아) 등 약 20명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무료 공연으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다. 연락처 755-0904.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화가 쪽지

제주대 도서관 인문학 강좌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2021 길 위의 인문학: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제주의 생활양식' 강좌를 운영한다. 10월 2~11월 6일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강연과 탐방 등으로 짜였다.

일정(괄호 안은 강사)은 '제주 주거와 율리' (이용규), '제주역사, 목축을 만나다' (강만익), '기후 위기의 제주, 그 현장을 가다' (김오진), '제주 건축과 도시 이해' (한인덕), '제주음식의 맛과 멋' (허남춘), '지속가능한 해녀음식문화' (오영주), '돛제와 신당' (강소진),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이민주), '제주의 말총과 모자의 나라 조선' (이민주), '의식주, 제주의 생활양식' (강문종)으로 구성됐다. 이달 27일부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문의 754-2204.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 역사·문화·자연을 다루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2021년 '제주학 아카데미'를 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올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전환해 진행한다. 이번 제주학 아카데미는 '제주 원도심 만나다' (강만익), '기후 위기의 경이로운 이야기' (김세미오), '탐라록'을 통해 본 속종대 제주' (이진영), '제주의 화산활동, 그리고 한라산' (안운산), '제주도와 제주마' (노정래)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강의 영상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유튜브 채널로 중계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로 마련되면서 도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수강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문의 710-7692.



# 休

나강 초대전

2021. 09. 08(수) ~ 10. 22(금)

관람시간 안내

평일 | Open 11:00  
Close 18:00

주말 (±.日) | Open 11:00  
Close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